

골프 공과 선사 도범 스님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5천원

"뜻한 대로 굴러가는 것은 공인가요, 제 마음인가요?"

타국서 수십 년간 오직 한국불교의 전법을 위해 애써온 스님은 왜 골프 공을 들었을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수행과 골프의 교집합은 무엇일까? 건강을 위해 골프채를 잡았다가 그만 골프 속 인생의 의미를 알아버린 한 스님의 골프 그리고 불교 이야기.

어느 절 스님의 이야기일까. 무대는 국내가 아니다, 80년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간 보스턴 문수사 회주 도범스님의 골프 입문기다. 마음을 비우고 겸허해야 하며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운동인 골프를 불교와 관계가 깊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불교는 명상을 통해 뇌를 쉬게 하는 종교다.

'중론', 인도사상계에 내던진 도전장



중론

가츠라 쇼류/고시마 기요타카 공저, 배경아 옮김/불광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기원후 2세기경 남인도서 활약한 용수(龍樹)는 그의 저서 〈중론(中論)〉을 통해 '제2의 붓다'로 추앙받았다. 그만큼 붓다의 진의를 명확히 밝힌 논서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중론〉을 불교에 국한된 종교 문헌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론〉은 인도를 포함한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근대에 이르러 서양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불교 논서 중 하나이다. 이처럼 〈중론〉이 세계 사상사에 한 획을 긋고, 서양 사상가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을 수 있던 이유는 인간의 언어가 갖는 필연적 허구성을 '공(空)사상'으로 정밀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날카로운 논리로 언어의 모순을 지적해 '있음(有)과 없음(無)' 등의 양극단을 부정하는 논법 형식은 현대 논리학과 언어철학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운문 형식의 축약적 표현이 주는 난해함과 내용 이해를 위한 방대한 사전 지식의 필요성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쉽게 허용치 않았다.

〈중론〉이 출간 된 후 지난 2천 년 동안 인도와 중국, 티베트의 많은 학승들이 '용수의 진의'를 파악키 위해 다양한 주석과 해석 등 근대 불교학자들의 〈중론〉 연구 논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견해가 오히려 〈중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고 요점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론:용수의 사상 · 저술 · 생애의 모든 것〉은 〈중론〉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의 실타래를 풀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 내용을 독자에게 알려준다. 여기에 산스끄리트 원전의 획기적인 현대어 번역과 게송마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개요를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중론〉의 저자로 알려진 용수의 생각과 삶, 그리고 그가 저술했다고 알려진 많은 문헌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세계적인 불교논리학자이며 범어 학자인 가츠라 쇼류 박사와 용수 연구의 권위자인 고시마 기요타카 박사, 두 저자의 신뢰할 수 있는 원전 번역과 해설은 지금까지 난해한 〈중론〉의 참뜻을 파악하는 데 최고의 안내서로 손색이 없다.

이 책은 크게 '번역 편'과 '해설 편'으로 구성돼 있다. 번역 편은 산스끄리트 원전을 바탕으로 한 귀경게 2게송, 본문 27장 445게송 전체의 번역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개요를 달았다. 해설 편은 최신 학술 연구 성과를 토대로 용수의 사상 · 저술 · 생애에 관해 면밀히 분석한다.

이 책 본문에 따르면 〈중론〉을 이해한 핵심은 귀경게(歸敬偈)에 있다. 귀경게란 저술의 첫 부분에 위치하는 게송으로, 논서의 취지가 담겨있다.

세계 유명 불서 〈중론〉의 획기적 완역
저자 용수와 '공(空)사상' 파헤쳐
공성으로 논파하지만, '공' 조차 부정
'개인' 아닌 '문화 현상' 용수 조명

"소멸하지 않으면서 생겨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면서 항상 있지 않고, 동일하지 않으면서 다르지 않고, 오지 않으면서 가지 않고, 희론을 적멸하면서 상서로운 연기를 설한 설법자 중 최고의 설법자 붓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귀경게〉

흔히 팔불중도(八不中道)라 불리는 이 귀경게는 ① 소멸 ② 생겨남, ③ 끊어짐 ④ 항상함, ⑤ 동일함 ⑥ 다름, ⑦ 오는 것 ⑧ 가는 것'의 여덟 항목을 부정한다. ① ~ ⑥은 용수 생존 당시, 번잡한 이론 체계에 매몰된 불교 아비달마 부파와 베다교의 유력한 학파인 바이쉐시까 · 니야야 학파 등의 실재론을 부정한 것이고, ⑦과 ⑧은 언어의 불멸성을 주장하며 제식(주문 · 주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도 문법학자들의 세계관을 부정했다.

이처럼 용수는 귀경게서 안으로는 불교 부파의 이론을, 밖으로는 베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와 같은 논의들을 모두 희론(戱論, 궤변)으로 간주하며 '연기(緣起)'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중론〉은 당시 존재한 인도의 모든 종교 · 사상가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희론들을 하나씩 논파해 가면서 '매거법(枚擧法)'이라는 논법을 통해 '존재 = 공성(空性, 실체가 없음)'임을 드러낸다. 매거법이란 모든 견해를 하나하나 들어 공성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용수는 '공'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용수는 게송에 분명히 명시한다.

"인도불교를 통틀어 붓다 이후 가장 저명한 인물, 제2의 붓다, 대승불교의 아버지, 8종(宗)의 조사(祖師)" 〈중론〉의 저자 용수를 지칭하는 찬사이다. 그의 〈중론〉은 대승불교 사상서 두 갈래의 큰 흐름인 중관 학파와 유가행유식 학파의 사상적 원천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긴 용수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 사후 약 500년이 흐른 시점서 불교 교단은 분열해 저마다의 교리 해석에만 몰두했고, 기존의 인도 베다교 무리는 불교 세력을 견제키 위해 불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전해 왔다. 불교도 입장서 보면 온통 사상적 논쟁만이 난무할 뿐 붓다의 본뜻은 점차 훼손되던 시기였다. 이때 이타 행위를 강조한 보살 사상과 함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대승불교 운동이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했고, 용수는 바로 그 시기에 활약한 인물이다.

아직 대승이 대승으로 불리기 직전의 시대, 공성을 무기로 갖춘 〈중론〉은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베다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용수의 〈중론〉은 인도사상사서 끊임없이 회자됐다. 더욱이 〈중론〉의 주장은 대승불교의 지향점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고, 이후 〈중론〉은 대승불교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 점이 용수가 대승불교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용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인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또한, 여러 대승불교 문헌의 저자로 알려지면서 '용수문헌군'이 출현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무엇이 진정한 용수의 저술인지 아직도 의견은 분분하다. 이러한 다양한 용수상(龍樹像) 속에서 어쩌면 용수는 '개인'이 아닌 '문화 현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대상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신화적인 용수의 모습을 함께 조명하며, 당시의 시대상과 〈중론〉의 진의를 새롭게 규명한다.



"명상은 핸드폰처럼 자신 충전하는 일"



명상하라

문진희 지음/수오서재 펴냄/1만 5천원

40여 년간 많은 스승과 성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에 몰두한 저자의 명상 안내서이다.

"이 명상서는 문진희 선생님의 오랜 명상 수행 경험과 여러 스승 및 경전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모아 글로 옮긴 첫 번째 책이다. 많은 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성품으로 선생님의 책은 늦은 감이 있다." 혜민 스님의 추천 글처럼 명상 고전서와 여러 스승의 가르침을 씹고 또 씹어 잘 소화시킨 후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휴대전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명상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휴대전화처럼 그냥 충전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종교인, 구도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명상이 현대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다.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 치유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실제로 다양한 질병 치료에 명상이 도입됐다. 미국의 명상인구는 이미 1,500만에 달했으며, 특히 금융, 법률, 예술 등 전문직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다. 한국에서도 걷기 명상, 색채 명상, 사진 명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상이 보편화되며 친근해지고 있다.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우리의 관심과 의지는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수렴된다. 40여 년간 많은 스승과 성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명상 수행에 몰두한 명상가 문진희는 영성과 의식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결과 '명상하라'는 말 이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한 권의 책을 집필했다. 제목으로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전하는 〈명상하라〉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우리의 타고난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명상을 권한다.

"충전한다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휴대전화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다 이 문장을 마주할 때면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절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명상가이자 구도자로 평생을 살아온 문진희는 1980년 인도유학을 시작으로 많은 스승과 성인을 만났다. 달라이 라마 승왕부터 라다 소아미까지 40여 년에 걸쳐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명상 수행에 집중했다. 인도에서 고대 경전을 공부하고 편자브 대학교서 요가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명상 고전서와 여러 스승의 가르침을 씹고 또 씹어 잘 소화시킨 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명상하라〉이다. 이 한 권의 책을 바탕으로 성인들의 말씀과 경전의 가르침을 익히며 명상을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명상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흘어진 다섯 시간의 명상보다 집중한 10분의 명상이 더 가치 있다' '악기에 대해 쓴 책이 수없이 많지만 책을 읽기만 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된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명상도 수행 없이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명상에 대해 열 번, 천 번을 물어도 대답은 '명상하라' 단 하나라고 말하는 책의 메시지처럼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安般守意經

선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선경禪經!

안반수의경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되는 수식관을 상세히 설하고 있는 『안반수의경』과 지관쌍수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도지경』을 상세한 주석과 함께 만난다!

안세고 漢譯, 석법성 역주 / 신국판 양장
240쪽 / 값 14,800원 / 운주사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수행!

위빠사나 수행의 방법론과 더불어, 저자가 그동안 위빠사나 수행을 해오면서 겪은 경험들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다.

영선 지음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 운주사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는 가르침!

풍경소리 5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영원히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지혜!

글 풍경소리, 그림 조병완 / 컬러 / 136쪽 / 값 13,800원 / 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